

# 퍼펙트! 김연아

## 국내 고별무대 '피겨종합선수권' 227.86로 1위 소치 완벽 리허설...올림픽 2연패 자신감 상승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마지막 국내 리허설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연아는 5일 경기도 고양시 어울리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십 2014’ 시니어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환상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스케이팅 챔피언십 2014’ 시니어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0.05점과 예술점수(PCS) 77.21점을 더해 147.26점을 기록했다.

전날 개인 최고 기록을 작성한 쇼트프로그램 점수(80.60점)를 합쳐 종합 227.86점으로 박소연(178.17점)을 제치고 예상대로 지난해에 이어 정상에 올랐다.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리허설 무대’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2연패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이날 김연아가 받은 227.86점은 자신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작성한 역대 최고 기록(228.56점)에 불과 0.70점 모자란 기록이다. 김연아가 국내·외 대회를 통틀어 받은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이기도 하다.

물론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공인하는 점수는 아니지만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봤다.

점수를 논의로 치고 실제 경기 내용을 들여다봐도 곳곳에 ‘소치행 청신호’가 보인다. 김연아는 4일 쇼트프로그램에서 한 번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플린 연기’를 했다.

시즌 첫 무대이던 지난해 12월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는 악셀 점프에 실수가 나왔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깨끗하게 착지했다.

가장 높은 기본점수(10.10점)가 걸려 주목기로 불리는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는 무려 2.01점의 수정점수

(GOE)를 받기도 했다.

프리스케이팅에서도 김연아는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배치한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깨끗하게 성공시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바 있는 스텝과 스핀 등도 향상된 모습을 보이며 부상 여파에 대한 우려를 털어냈다.

물론,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날 김연아는 두 차례 실수를 했다.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마지막 루프 점프를 뛰지 못했고, 마지막 더블 악셀 점프는 1회전으로 처리했다.

모두 연기 후반부의 점프에서 나온 실수라는 점에서 체력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다지만 다른 요소들을 무난히 처리할 만큼 남은 한 달 동안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피겨 여왕’ 김연아가 5일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14’ 시니어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환상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FC’ 다시 댐다

## 선수단 규모, 33명서 28명으로 리빌딩 최성환·이완 등 9명 영입...첫 훈련 소화

광주 FC가 ‘빛고을 타카’를 목표로 2014시즌 첫 발을 내디뎠다.

광주가 지난 3일 선수단을 소집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월드컵경기장 트랙을 돌며 몸을 풀 선수들은 오후에는 금호고등학교로 장소를 옮겨 체력훈련을 실시했다.

새 출발의 해, 선수단이 확 달라졌다. ‘작지만 강한 광주’를 목표로 선수단 규모를 33명에서 28명으로 줄였다.

“내가 이적을 한 것 같다”는 여름의 농담처럼 선수단도 대폭 개편됐다. 지난 시즌 광주의

이름을 달고 댐 7명을 제외하고 선수단이 전폭적으로 물갈이 됐다. 광주는 먼저 체력과 경력이 뛰어난 9명의 선수에게 광주 유니폼을 입히며 변화를 꾀했다.

프로 10년 차 베테랑 수비수 최성환으로 수비에 무게를 댐했다. 2005년 대구에서 데뷔한 최성환은 수위와 올산을 거쳐 프로 통산 107경기 출장에 2골 2도움을 기록했다. 187cm·78kg의 건장한 체격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 수비가 눈에 띈다.

96경기 출전한 프로 9년 차 수비수 이완도

새 식구다. 원발잡이인 이완은 수비조율 능력이 탁월하고 팀에 대한 헌신도 리더십이 강하다는 평가다. 지난 시즌 대전에서 활약한 박진욱도 유망 수비를 책임진다. 일대일 방어능력과 날카로운 크로싱이 장점이다. 통산 184경기 출장에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경남의 알짜배기 원포워드 김민수도 광주의 유니폼을 입었다. 과감하고 저돌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을 갖춘 김민수는 7시즌 동안 85경기 출장에 6득점 10도움을 기록했다. 코너킥과 프리킥 등 세트피스 전담 키커로서의 경험도 광주 공격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첫 체력훈련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전준형도 새 식구다. 2009년 경남에서 데뷔해 인천을 거쳤으며 통산 55경기 출장에 2득점 1도움을 올렸다. 스피드와 지구력은 물론 상대에 대한 압박이 좋다.

대구의 송한복과 김유성, 전북의 김우철 그리고 상주 정호정도 광주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통산 100경기 출장에 나온 송한복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패스 차단 능력으로 중원의 해결사 역할이 유력하다. 공격형 미드필더 김유성은 패스와 슈팅이 좋고 통산 25경기 출장에 2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또 3년차 김우철은 중원을 노리는 젊은 선수. 정호정은 1대1 승부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수비수다.

광주는 3명의 외국인 선수를 포함 5~6명의 추가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본격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남기식 감독은 오는 16일 광주 전지훈련에 앞서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 하고 조지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진격의 ‘전남 드래곤즈’

## 김영우·현영민·마상훈 영입 공·수 강화

전남 드래곤즈가 김영우·현영민·마상훈을 영입해 공·수를 강화했다. 전남이 측면 공격력 강화를 위해 전북에서 김영우를 영입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다.

김영우(30·MF)는 177cm, 67kg으로 2008년 경남을 통해 프로에 데뷔했으며 전북과 경찰청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K리그 통산 112경기 출장에 9골 11도움을 기록했다. 볼 소유능력과 돌파력, 패싱력이 좋으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전남은 김영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술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우는 “전남에 뛰어난 공격자들이 많

은 만큼 주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남은 또 베테랑 현영민(34)과 신예 마상훈(23)을 통해 수비를 강화했다.

179cm, 73kg의 현영민은 2002년 올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삼남을 거쳤으며 K리그 통산 316경기 출장에 8골 44도움을 기록한 베테랑. 노련한 현영민의 합류로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전남 수비진에 안정감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고 출신의 마상훈은 183cm, 79kg의 다부진 체격으로 2012년 강원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를 밟았다. 지난 시즌에는 태국 BCCU 팀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으며 위치선정과

협력수비가 탁월하다.

현영민은 “전남은 젊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전남이 상위 스피릿에 진출하도록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팬 여러분들도 경기장에 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은 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교육관에서 시무식을 갖고 2014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전남은 창립 20주년이 되는 올 시즌을 제 2의 도약의 해로 삼고 새 엠블럼과 새 유니폼도 발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영우

현영민

마상훈

